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그림들을 봐 주십시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듣고) 잘 모르시는군요. 이 그림들은 인공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반응을 본 후) 놀란 분들이 많군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최근 예술 작품 창작까지 그 영역을 넓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빅 데이터에서 수많은 패턴을 발견하여 정보를 해석, 추론하며 학습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B]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곡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인공지능이 창작한 소설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작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정이 미흡하고 사건 전개에 개연성이 떨어지며,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C]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 일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위해 인간의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있다는 주장과, 직접 이를 창작한 인공지능에게 있다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놓고 인간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 창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를 마무리할 때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그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③ 용어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질문을 들은 청중의 대답을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을 점검하여 수정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각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창작은 독창성을 중요시한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은 대상을 복제,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이 아니지 않을까?
- 학생 2: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 학생 3: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논란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 귀속 여부, 거짓 저작권 주장에 관한 것이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아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요약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생각하며 들었다.

3. <보기>는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를 [A]~[C]에 활용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자료 1>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해 결과물을 창조해 낸다. - 과학 신문 -

<자료 2> 소설을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작가 인터뷰 -

<자료 3>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창작적 행위만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저작권 연구 보고서 -

- ① [A]: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한 후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B]: 인공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 데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B]: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C]: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C]: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이 작업한 결과이므로 창작에 참여한 인간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였다.

[4 ~ 7] (가)는 공연을 앞둔 연극 동아리 부원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최근 3년 간 정기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의 수가 연속해서 줄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봐 걱정이네.

학생 2: 기존 공연에서는 학생들에게 너무 익숙한 교과서 작품을 공연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니까 결과가 다를 거야.

학생 3: 맞아.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자고 기획한 것은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였잖아. 기획한 대로 준비를 잘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거야.

학생 1: 나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해. 하지만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예년과 같을 수 있을 거야. 특히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아. 학교 신문에 우리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실는 것이 어떨까?

학생 2: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을까?

학생 3: 작품 제목, 공연 일시와 장소 등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리지 말고, 우리가 공연하는 작품이 의미 있는 작품임을 알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글을 쓰자.

학생 1, 2: 좋아.

학생 3: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자.

학생 2: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면 좋겠어. 그 내용은 내가 준비해 볼게.

학생 1: 작품의 줄거리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거야. 줄거리의 일부만을 소개하되,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 줄거리 관련 내용은 내가 준비할게.

학생 1: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걸 내가 준비할게.

학생 2: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을까?

학생 3: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나열만 해서 우리 공연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기가 힘들 것 같아.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공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학생 1: 공연 일시와 장소 등 공연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어디에 제시해야 좋을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 2: ㉡ 기본 정보를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면 그 정보들이 부각되지 않아서 공연 일시와 장소를 잘 기억 못하지 않을까?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1: 그게 좋겠다. 공연 정보를 안내한 후에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작품 내용을 소개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잘 제시하도록 하자. 그리고 글의 끝부분에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연 관람을 권고하도록 하자.

학생 2, 3: 응, 좋아.

학생 1: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나)

㉢

10월 17일(수)부터 10월 19일(금)까지 오후 6시에 학교 강당에서 ○○ 연극 동아리의 24번째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동아리에서는 정기 공연 때 교과서 속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서 속 작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익숙한 작품을 공연하여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공연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 작품은 독일 청소년 연극상 수상작인 「복서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안한 「복서와 소년」입니다. 주인공은 왕년에 복싱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노쇠한 70대 노인과 학교 폭력을 겪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노인은 허름한 요양원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던 노인의 방에 어느 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남학생이 찾아옵니다. 이 작품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학생은 노인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줄 알고 노인의 방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노인은 이 학생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친구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봉사를 오게 된 것도 알게 됩니다.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노인은 자신이 기억에서 의식적으로 지워 버렸던, 화려했던 과거와 해체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를 넘어서 소통하게 되고 각자의 상처 역시 치유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세대 갈등, 학교 폭력, 독거노인 문제 등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이고 학생은 학교 폭력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무기력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의식의 여행을 함께 계획합니다. 이들의 좌충우돌 거사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연을 보고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이 관람객 감소를 염려한 것은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② ‘학생 2’가 이번 공연의 결과가 기존 공연과 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연 작품의 내용상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군.
- ③ ‘학생 3’이 이번 공연의 기획 의도를 제시한 것은 공연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군.
- ④ ‘학생 1’이 학교 신문에 공연을 알리는 글을 실자고 제안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⑤ ‘학생 3’이 공연 작품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알리자고 제안한 것은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기획한 의도를 고려한 것이군.

13.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 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듬직한 ㉢형같다. 이제 내가 심혈을 ㉣기울일것은 ㉣공부 뿐이다.

- ① ㉠: '-르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 ② ㉡: '갔다'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갔다'로 수정한다.
- ③ ㉢: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 ④ ㉣: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 ⑤ ㉣: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맞기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텃 누니 비록 블 ㅅ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으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으)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텃'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흐노니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나니)
- (4) 부텃 敎化(교화)를 돕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돕-'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냐 간접적으로 높이는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돕-'은 '敎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王(왕)스 일후믄 濕波(습파) |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이시더니)

ㄴ. 님금 恩私(은사)를 갑습고져
(임금의 은사를 갓고자)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뵙고)

ㄹ. 太子(태자) | 講堂(강당)애 모도시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ㅁ. 諸佛(제불)을 供養(공양)흐습게 흐쇼서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후믄'을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② ㄴ에서는 '-습-'을 통해 '恩私(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③ ㄷ에서는 '-습-'을 통해 '世尊(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⑤ ㅁ에서는 '-습-'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15.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나는 '㉡'와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 ① 소유물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16 ~ 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을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살펴보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는 여러 형태의 비용을 초래한다.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히며 사회에 부정적 ㉠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사법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을 합한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범죄 행위의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는 범죄 수준과, 비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는 경제적 한계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효율적이다.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억제하게 되면 비효율적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억제 비용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 억제 측면에서 볼 때 형사 제재는 사람들에게 처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형사 제재는 행위자의 이익보다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즉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가 얻는 이익과 사회가 입는 손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형사 제재는 사법 당국이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형사 제재의 다양한 기능 중 범죄 억제 기능에 한정해서 최적의 형사 제재 수준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의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 행위자는 A 부류의 행위는 50, B 부류의 행위는 4, C 부류의 행위는 7의 이익을 각각 기대할 수 있고 최대 기대 제재*는 5라고 하자. 그런데 사법 당국이 A 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있고, B 부류와 C 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자. 즉 어떤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방위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50이 됨을 알지만, 그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4가 될지 7이 될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단,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행위는 억제되며,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크기는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A 부류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 부류가 아닌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B 부류인지 C 부류인지를 모르므로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기대 제재가 4이면, B 부류 행위는 억제될 것지만 C 부류의 행위는 억제되지 않는다. 기대 제재를 최대 기대 제재인 5로 증가시킬 경우,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에는 변화가 없으면서도 C 부류의 행위에 대한 제재 비용이 더 ㉢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다. ㉣ 결국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본 최적 기대 제재는 최대 기대 제재인 5가 아니라 B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저 기대 제재인 4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0의 제재가 최적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논의는 제재 확률, 즉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확률이 일정 수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서 제재 강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재

강도와 아울러 제재 확률이나 행위자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재 강도가 징역 5년이고 제재 확률이 40%인 경우와,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두 경우 모두 기대 제재는 징역 2년이다. 행위자가 두 제재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즉 '위험 중립적 행위자'라면 어느 경우든 동일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제재 확률을 40%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이 ㉤ 절감되므로, 제재 강도가 높고 제재 확률이 낮은 후자가 효율적인 억제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위험 선호적 행위자'라면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억제이다. 위험 선호적 행위자일 때 제재 확률이 40%가 되면,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와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가져 오는 제재 강도는 5년보다 작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쉽게 말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순피해 비용: 범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피해 비용에서 범죄를 통해 행위자가 얻는 편익을 뺀 값.

*최대 기대 제재: 제재로 인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비효용의 최대치.

16.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의 합이 범죄의 사회적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위험 중립적 행위자에 비해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형량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③ 범죄 억제 수준은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동일한 수준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 ④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는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억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⑤ 제재 강도 5년에 제재 확률 40%인 제재보다 제재 강도 20년에 제재 확률 10%인 제재가 위험 중립적 행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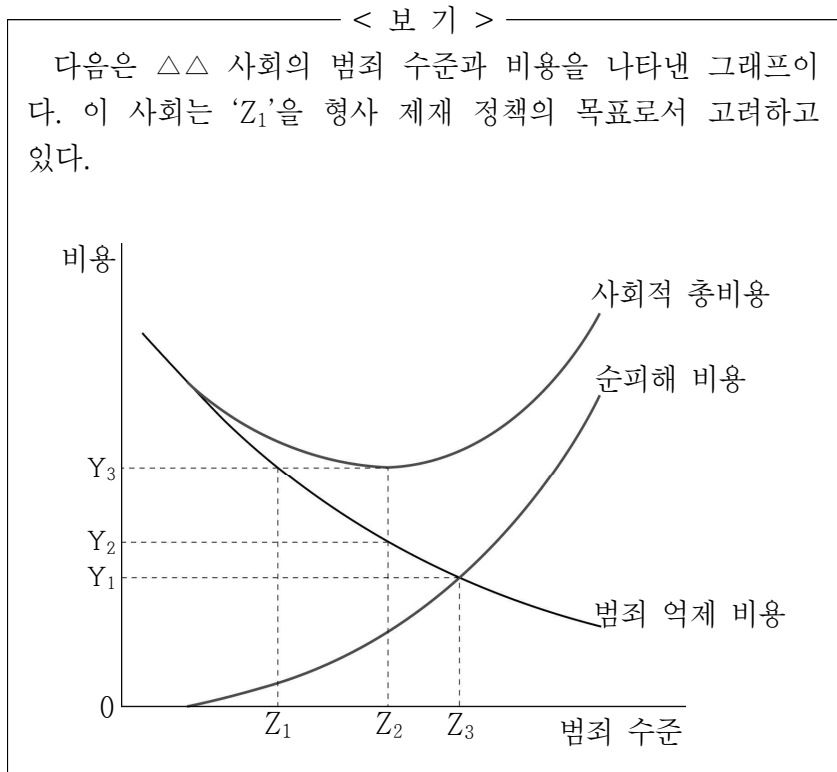
1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 당국은 A 부류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사법 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가 B 부류의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사법 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서는 C 부류의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사법 당국이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최적 기대 제재는 4보다 커질 것이다.
- ⑤ 사법 당국이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 할 경우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18. 윗글의 '형사 제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처벌할 때 최적 억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 ②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어떤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관한 정보가 완전할수록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④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을 효율적인 범죄 억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사회가 최적 범죄 억제 비용을 투입했을 때의 범죄 수준은 Z₃이 된다.
- ② △△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 억제 비용은 Y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③ △△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때의 사회적 총비용은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작다.
- ④ △△ 사회가 범죄 수준을 Z₁보다 더 억제시키면 범죄 피해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총비용 역시 줄어든다.
- ⑤ △△ 사회가 Y₃에서 Y₂로 범죄 억제 비용을 줄인다면 범죄 수준은 Z₁에서 Z₂로 늘지만 범죄 억제 비용은 최적화된다.

2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와 범죄 억제 효과가 동일하나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
- ②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기대 제재가 5인 경우보다 범죄 억제 효과는 증가하고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
- ③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보다 기대 제재가 5인 경우가 B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 ④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에 비해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범죄 억제 효과와 제재 비용 모두 더 작기 때문이다.
- ⑤ 기대 제재가 5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4인 경우와 제재 비용은 동일하나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② ㉡: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 ③ ㉢: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
- ④ ㉣: 아끼어 줄임.
- ⑤ ㉤: 잘하는 일.

[22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에 호국 강변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용이요 명은 훈이니, 대대로 명가(名家)의 자손이라.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밭 갈기를 일삼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 없음을 부부 매일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더니, 일일은 용훈이 양친 탄 왈,

“대대로 무후(無後)치 아니하더니,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하며 자탄함을 마지아니하거늘, 부인 관 씨 대 왈,

“불효 삼천에 무후한 죄 크다 하오니, 옛법으로 의논컨대 첩을 내침 직하오나 군자의 후하신 덕을 깊이 생각하와 지금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봄날에 살얼음판을 디딘 듯하와 어찌 마음이 안연하리이까. 잠깐 듣사오니 태항산 천축사라는 절에 올라가오면 삼불이 극히 영험하시다 하오니, 고단함을 생각지 마시고 첩으로 더불어 정성으로 발원코자 하나이다.”

용훈이 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無子)한 자가 뉘 있으리까. 그러하오나 한스러운 인생이오니 세존에게 정성으로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즉시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전조 단발하고 삼칠일 목욕재계 후에 불전에 공양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 외려 산속의 절에서 불도를 닦는 독실한 속인이겠더라.

일일은 부인 관 씨 일몽(一夢)을 얻으니, 동해에서 동자 일인이 올라와 부인에게 세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차지하옵는 신장(神將)이옵더니, 옥황의 명을 받자와 ‘홍해국 태자를 베라’ 하고하시매 그 명을 받들었지만,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 하시고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아지 못하옵더니, 마침 천축사 세존께옵서 ‘부인에게 의탁하라’ 하시오매 왔사오니, 부인은 어여뻐 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반가이 여겨 품 안에 안다가 깨니 남가일몽이라. 즉시 용훈을 깨워 몽사를 여쭙으니, 용훈이 크게 기뻐 즉시 집으로 내려와 생남(生男)하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칠 삭 만에 생남하매,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으니, 훈이 크게 기뻐 왈,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옛날 명인의 풍도를 간직하였으매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름을 문이라 하고 자는 벽력이라 하였다.

(중략)

연화 도사 왈,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말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

훈이 다시 일어나 절하고 여쭙오되,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선생께옵서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방법을 팔 년을 가르치니,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

도사 왈,

“이제는 술법을 배웠으니 대업을 이룰지라. 빨리 돌아가 빛

난 재주를 세상에 베풀고 어진 성군을 만나 웅장한 이름을 천추에 전하도록 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할진대 너의 선생을 용납하게 말라.”

하니 용문이 두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 팔 년을 선생 문하에 머물러 높은 재주를 배웠사오니,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부이나 어기리이까.”

하고 하직을 아뢰니 도사 왈,

“부디 좋은 때를 잃지 말라.”

하시더라.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 인하여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

용문이 일일은 ㉡ 강변에 나아가 명량한 달빛을 따라 배회하더니, 먼 데서 크게 불러 왈,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으니,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거늘, 용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과연 말이 강변에 섰오되, 높기는 칠척이요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진실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거늘,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하고 한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놓는 듯하니, 마땅히 장군의 재주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마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심중에 크게 기뻐 즉시 말에 올라 시험할새 적토마 한번 소리하며 네 굵을 놀리니, 빠르기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리라. ㉢ 한곳에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에 한 동자가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에 청룡포를 입고 암상(巖上)으로 내려와 읊하여 왈,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받자와 전장 기계(戰場器械)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으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용문이 괴이히 여겨 동자가 섰던 곳으로 나아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으되 광채 찬란하고 전면에 금자로 새겼오되,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개탁하라’ 하였거늘, 용문이 생각하되,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 하였으니, 유유한 천의를 알지 못하거니와 호국 왕상이 천의를 범코자 하기로,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 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천검을 들며 말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수강을 바라보며 말을 채쳐 재주를 시험하니, 적토마가 한번 솟으며 소리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는지라.

- 작자 미상, 「용문전」 -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하였다.
- ⑤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24. <보기>를 읽고 윗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 ① 관 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옥도삼략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훈은 용문을 데리고 ㉠에 들어갔다.
- ②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③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용문은 ㉣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⑤ ㉡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26 ~ 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를 찾는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제주도에서는 손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름.)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 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 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사오 년 전 콩 두 말을 흠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명석을 펴고 내다 년 메주 [A] 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과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과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당신이 콩을 흠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과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괴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깅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중략)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 형도 나도 울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낫 놓고 영영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년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 형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란, 군인들이 일주 도로변 옴팡진 밭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붙였는데, 사람마다 밭이 안 들어가젠 밭담 우엔 었디어전 이마뺨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며 살려 달랜 하던 모양입니다.”

“쫓쫓쫓, 운동장에 뱉겨져 널려진 ㉢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민 아매도 가매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죽은 사람 몇 백 명이나 되까?”

하고 작은 당숙이 말하자 길수 형은 낮을 모질게 찌푸리며 말을 씹어뱉었다.

“면에서는 이 집에 고구마 몇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몇 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 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효는 이날 이때 한 번도 통계 잡아 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엔 오백 명은 넘은 것 같은디, 한 육백 명 안 되까 마썰? 한 번에 오륙십 명씩 열한 번에 몰아가시니까.”

열한 번째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었다. 때마침 대대장 차가 도착하여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만약’이란 가정이 따라왔다. 만약 대대장이 읍에서부터 타고 오던 지프차가 도중에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면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삼백 명이나 사백 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백 명 내외로 줄어든 것이고, 또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 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궁할 만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 명이란 수효는 ㉔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말한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니까 마썸?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이서 마썸?”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할 터였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부락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㉔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었다. 신혼 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권이란 것이 있을 때랴. 또 가들이 전투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든 해도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하였을 공산이 커. 난 출범 생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의 일부일 거라.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란 거. 견벽청야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라는데,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며. 그러니 일정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려 공비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자는 궁리이었쥬. 그런데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만 잘못 일이 글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아시니 말이며.”

“아니, 고모부님도 참, 그 말을 곧이들었수짜? 그건 옷대加里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 우리 부락처럼 폐죽음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뺀 돌아가 명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우짜? 말도 안 되는 소리우다. 이 작전 명령 자체가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라는 게 틀림없어 마썸.”

- 현기영, 「순이 삼촌」 -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을 병치하는 방식을 통해, [B]는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옴팡진 밭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⑤ ㉤: 고모부는 당시 운동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 ①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이겠군.
-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그건 옷대加里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겠군.

[29 ~ 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미세 먼지로 알려져 있는 입자상 물질과,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와 같은 질소 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물질들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나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DPF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포집하고, 필터에 쌓인 물질들을 일정 시점에 연소시켜 제거함으로써 필터의 기능을 회복한다.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포집 필터까지 연료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엔진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연료가 공급이 되면 배기가스에 연료가 섞여 필터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DPF 방식은 엔진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 없이 연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한 반면 연비가 떨어진다. 또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로는 ㉠ EGR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킨 다음, 연료를 배기가스와 함께 연소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까닭은 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연소될 때 질소 산화물의 발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소 온도를 낮추면 입자상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EGR 방식은 DPF 방식과 함께 쓰인다. EGR 방식은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고,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EGR 방식보다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은 SCR 방식이 개발되어 EGR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 SCR 방식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EGR 방식보다 엔진에서의 연소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입자상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SCR 방식은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도 있으며 상온에서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풍겨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R 방식에서는 요소를 물에 녹인 요소수를 공급하는 요소수 탱크와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 공기 주입기를 별도로 사용하여 SCR 장치에서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요소는 열분해를 통해 암모니아와 아이소사이안산으로 분해되고, 아이소사이안산은 가수 분해*되어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일산화 질소는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와 함께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바뀐다. 그리고 이산화 질소는 일산화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역시 질소와 물로 바뀐다.

[A]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SCR 장치 내부는 반응 물질을 흡착시키는 백금이나 바나듐 등을 이용한 금속 촉매로 만들어져 있다. SCR 방식에서는 이러한 촉매의 표면에 배기가스가 오래 머물도록 해 주어야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공간 속도를 느리게 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공간 속도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SCR 방식은 저감 효율이 높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안고 있다.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암모니아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고체 형태의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이 생성되어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고착될 수 있다.

* 가수 분해: 큰 분자가 물과 반응하여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암모니아 슬립 현상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을 고착시킨다.
- ②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데 DPF 방식과 EGR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DPF 방식에서는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배기가스에 섞인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 제거한다.
- ④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이산화 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열효율이 높다.
- ⑤ SCR 방식에서 이산화 질소가 저감될 때 일산화 질소가 함께 저감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다음 표는 연소 온도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저감 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배기가스 온도 (°C)	㉠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저감률 (%)
190	151	37.7	75
362	176	0.89	99.4
388	355	0.44	99.8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 ① 배기가스 온도가 190 °C일 때 ㉠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를 거치면서 저감되었을 것이다.
- ② ㉠에서 ㉡로 공급된 요소가 ㉡에서 열분해와 가수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를 거치고 남아 있는 입자상 물질은 ㉣를 거치게 되면서 저감되기 때문에 ㉡에 비해 ㉣의 입자상 물질이 적을 것이다.
- ④ ㉡에서 일산화 질소가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물과 질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필요할 것이다.
- ⑤ 배기가스 온도가 388 °C일 때 ㉡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은 것은 연료가 높은 온도에서 연소될수록 질소 산화물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3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을 높인다.
- ② ㉠은 ㉡과 달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배출한다.
- ④ ㉠은 ㉡에 비해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다.
- ⑤ ㉠은 ㉡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연료가 연소된다.

32.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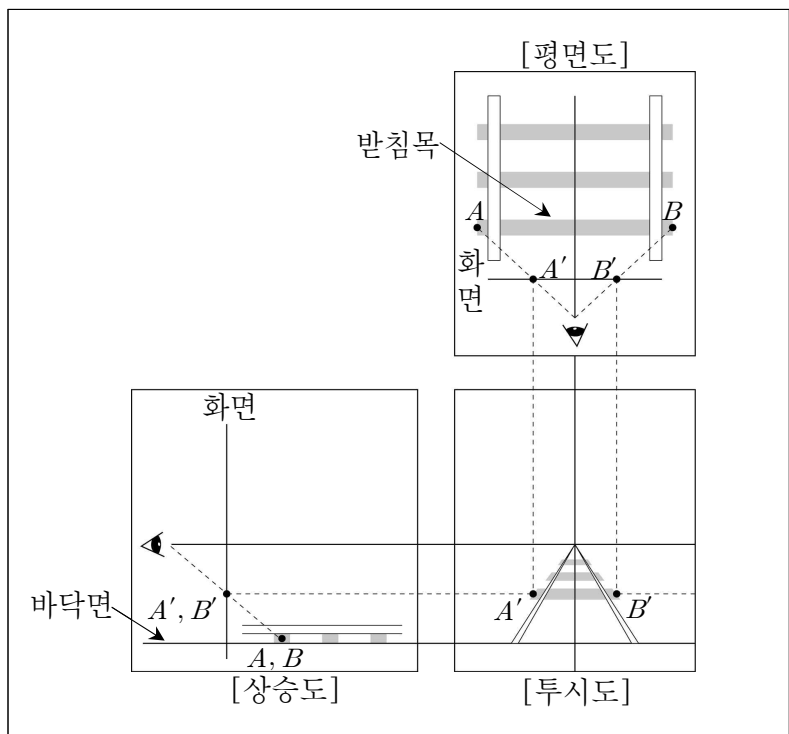
- ① 공간 속도가 빠르면 장치 내에서 배기가스의 체류 시간이 짧아져 저감 효율이 감소할 것이다.
- ② 금속 촉매의 표면에 단위 시간당 흡착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많을수록 저감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 ③ SCR 장치 내부에 백금이나 바나듐을 이용하는 것은 공간 속도를 빠르게 하여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④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일정할 때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가 클수록 공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 ⑤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가 일정할 때 공간 속도가 빨라지면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33 ~ 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는 자연적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다. 이를 위해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 적용한 투시 원근법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

1435년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광학의 원리에 ㉡ 기초한 투시 원근법을 소개하였다. 화가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놓여 있다고 하자. 눈과 상자 위의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시선이라고 하고,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영이라고 한다. 상자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눈과 상자 사이의 유리판은 곧 화면이 된다. 알베르티는 ㉢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면, 그림 속의 인물이나 물체 등이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평행한 두 선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 아래 <그림 1>의 투시도는 철로를 ㉣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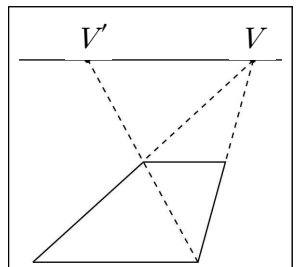
철로의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영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중앙선이라고 하는데, ㉤ 이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하자. 또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받침목의 맨 왼쪽 점 A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A', 맨 오른쪽 점 B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받침목들도 그리다 보면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며, 양쪽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은 ㉥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승도를 보자.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그림이다. 철로가 놓인 바

닥면을 기준으로 볼 때 ㉦ 중앙선은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상승도에서 A'와 B'는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다른 받침목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

철로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를 ㉧ 완성할 수 있다.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놓는다. 그리고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연장하고, 상승도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연장하면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투시도에서 점 A'의 위치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의 수직선과 상승도의 점 A'로부터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도 투시도에 표시할 수 있고, 이 점들을 모으면 철로의 상을 얻을 수 있다.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람 거리를 ㉨ 유지해야 한다. 관람 거리는 관람자와 그림 사이의 거리로,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 <그림 2>는 가로 길이가 C이고, 세로 길이가 D인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를 추적해 보자. 가로 변은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은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V라 하자. 이때 점 V는 그림의 소실점이다. 점 V에서 직사각형의 가로 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이 선을 지평선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점을 V'라 하자.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c,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C : D = c : d$ 가 성립하여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

한편 르네상스 시대에 원근법을 연구했던 프란체스카는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릴 경우, 화면에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사물의 상이 구현된다. 하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후대 미술가 중에는 투시 원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닌 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투시 원근법은 여전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 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증강 현실의 구현에 투시 원근법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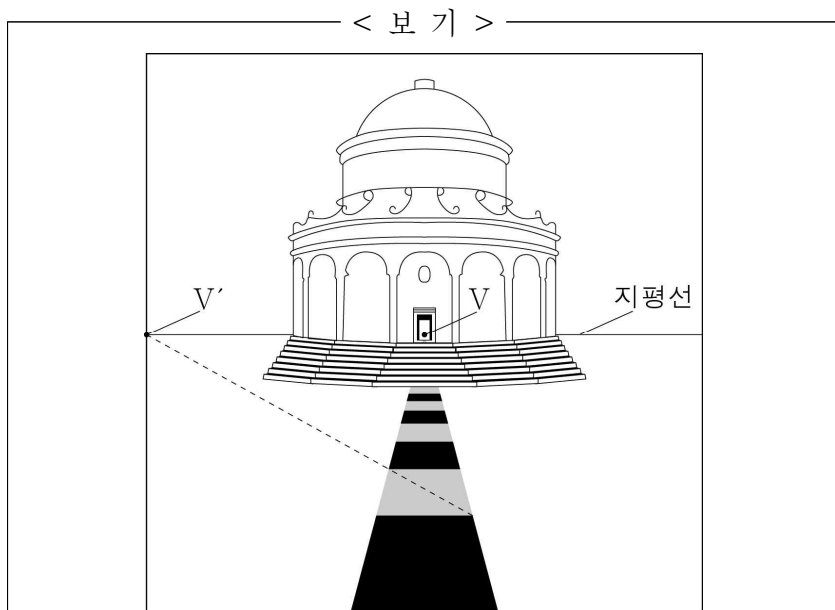
3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을 들어 투시 원근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34. 윗글의 <그림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 ②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에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 ③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 양 끝점의 사영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
- ④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 ⑤ [투시도]에서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하였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35.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위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0 cm이다. 그림에서 건물의 계단 앞까지 이어져 있는 타일들은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다. 실제 타일은 가로 변이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이 화면과 수직이다. 그림 속 타일들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건물 중앙 입구의 한 점(V)에서 모인다. 이 점은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 그림의 점(V)에서 그린 지평선은 그림의 가로 테두리와 평행하며, 지평선과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그림의 세로 테두리에서 한 점(V')으로 만난다.

- ①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 cm 였다면,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겠군.
- ②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 거리를 90 cm로 유지해야겠군.
- ③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군.
- ④ 가로의 길이가 100 cm, 세로의 길이가 50 cm인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최적의 관람 거리는 180 cm겠군.
- 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V'는 화면의 밖에 위치하겠군.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것이다.
- ② ㉡: 소실점을 하나만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 ③ ㉢: 철도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 ④ ㉣: 중앙선과 화면이 만나는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 ⑤ ㉤: 바닥면이 화면과 수직이 된다는 것이다.

37. ㉠ ~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 공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 ② ㉡: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 ③ ㉢: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 사고 예방을 위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⑤ ㉤: 조선 시대의 마을을 재현한 민속촌을 만들었다.

[38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는 양주(楊州) | 쏘올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경(當今景) 잣다운더
 성슈만년(聖壽萬年)ᄃᆞᆫ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푼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ᄃᆞᆫ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꺾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찌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넝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잣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늙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폐하고: 마다하고.
 * 흔덕흔덕: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
 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
 레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
 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
 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뜰 눈과 부르건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
 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
 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
 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
 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긋고, 늙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
 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
 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
 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난 신품이 아님
 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어 꼬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
 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
 (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핑결하고 아름다
 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
 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
 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등실등실 동해를 떠나오
 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
 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9.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늪연한 줄 반가운더'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대숲이 푸르려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네는 양주 | 소울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甕'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③ '기국성왕이 성터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41.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는 서해 **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빨 밭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러
 빨 밭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낙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
 다는
 저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
 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
 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확확 후리
 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
 를 타고 내려가,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
 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
 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땃바
 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4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둥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땅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땃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